

## 미얀마와 라오스의 마약 문제

동남아시아에서의 아편 재배는 2006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발간된 유엔의 마약 및 범죄국(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미얀마(전년 대비 14%)와 라오스에서 아편 재배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 2011년 아편 생산이 약 610톤으로 2010년의 580톤에 비해 약 5% 증가했다.

농부들이 마약 재배에 손을 대는 것은 치안과 정치적 안정의 부족, 지속가능한 개발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헤로인의 시장 가격 증가를 손꼽을 수 있다. 헤로인에 대한 수요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크게 증대했다. UNODC의 보고에 따르면,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아편제 사용자의 숫자가 세계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중국에만도 당국에 등록된 헤로인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미얀마에서의 아편 평균가는 2010년의 1kg당 305달러에서 2011년에는 450달러로 올랐다. 가격의 이러한 증가는 농부들을 아편 재배로 유혹한다. 그리하여 라오스의 경우, 아편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66%나 증가하여 2012년 6,800헥타르로, 미얀마의 경우는 17% 증가하여 51,000헥타르에 달한다. 아편 재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도 증가하여, 라오스에서는 아편 재배농가가 38,000호, 미얀마에서는 최소 30만 호로 추산된다.

미얀마에서의 아편 생산의 약 90%는 미얀마 동북부의 샨(Shan)주와 까친(Kachin)주에서 이루어졌다. 태국의 서북부와 중국의 윈난성과 접해 있는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미얀마 정부군과 소수 민족 반란군들 간 무장충돌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곳으로, 아편 재배가 집중된 곳이다. 미얀마는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아편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2011년 전 세계 아편 재배의 23%를 차지했다. 라오스는 세계 점유율이 불과 2%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의 아편 재배가 2010~2011년 37%, 2011~2012년 66%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미래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UNODC의 실행이사인 유리 페도토프(Yuri Fedotov)는 “이 지역의 상황이 불행하게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암페타민류의 각성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전반적인 마약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아편 재배가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에서 2011년 생산된 아편의 추정가는 약 3억 1,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나 증가한 것이었다. 2012년에 발간된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생산된 아편의 가치가 4억 3,100만 달러에 달했다.

유리 페도토프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이 지역에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마약거래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UNODC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담당자인 게리 루이스(Gary Lewis)는 양귀비 재배를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로 태국을 든다. 태국은 지난 40년 간 양귀비 재배를 근절하기 위해 대안작물 프로그램 육성을 비롯한 여러 방안의 도입을 위해 약 10억 달러를 투입했다. 루이스는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목표가 보다 짧은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얀마 당국은 수년 전 아편을 2014년까지 근절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하지만 인공위성과 헬리콥터, 지상 현지조사 등을 통한 유엔의 연구에 의하면, 그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

라오스에서의 마약 확산은 미얀마와 태국과 인접한 서북부 국경 지대에서 시작하여 라오스의 교통 요충지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태국의 치앙콩(Chiang Khong)과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라오스의 국경지방인 보게오(Bokeo)주 특히 후아이사이(Houayxay)시, 그리고 미얀마 쪽으로의 국경도시인 므앙싱(Muang Sing), 라오스 중북부의 교통 요충지 루앙남타(Louang

Namtha), 우돔사이(Oudomxay), 루앙프라방(Louang Prabang), 수도 위앙짠(Viangchan) 등에서 마약거래와 마약중독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루앙남타는 서쪽으로는 후아이사이와 므앙싱, 북쪽으로는 중국의 윈난성, 동쪽으로는 베트남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의 교차로 도시이다. 루앙남타 밑에 있는 우돔사이도 비슷한 성격이다.

필자가 2012년 10월 중순 후아이사이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에게서 후아이사이 주민들, 심지어 학교 학생들 사이에 마약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위앙짠만 하더라도 약 1,800명의 마약 상습복용자들이 이 도시의 솜상아(Somsanga) 마약 치료센터와 직업훈련센터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마약은 대부분 서북부와 북부의 마약밀매 루트를 따라 위앙짠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루앙남타주 경찰의 마약단속국 부국장인 알룬야뎃 부아시사왓(Alounyadeth Bouasisavath)에 의하면, 라오스의 북부 지역에 라오스 현지인과 외국인 마약업자들이 포함된 복잡한 조직망이 존재한다. 마약밀매업자들은 종종 라오스 농촌주민들을 하수인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알룬야뎃 부국장은 당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약 갱들이 수시로 마약밀매망과 거래 방식을 변경하기 때문에 그들을 소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라오스 당국은 자국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루앙남타의 마약단속국은 마약의 폐해에 대해 현지주민, 학교, 공공기관 등에 더욱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라오스의 다른 도시 및 주의 관련 당국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미얀마, 태국, 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라오스와 미얀마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 대륙동남아시아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는 마약밀매와 마약중독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이제는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 정부들과 국제적인 비정부기구들이 이 문제에 대한 개발 협력 및 원조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AsiaNews, 2011/12/15, AsiaNews, 2012/10/31, Vientiane Times, 2012/6/21]